

완도군-수자원공사, 보길·노화 광역상수도망 구축 협약 체결

육상·해저 관로 31.1km, 배수지, 가압장 등 설치 679억 원 투입... 도서 지역 안정적 용수 공급 기대

완도군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유역본부(본부장 백인노)와 지난 9월 22일 '완도군 보길·노화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완도군의 평균 강우량은 765mm로 평년 강우량의 53% 수준이었으며, 주민 7천여 명의 식수원인 보길 부항 수원지 저수율은 2022년 9월 4.39%까지 낮아져 561일간 제한급수를 시행했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시 가뭄 지역인 보길·노화도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6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남 광역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관로 31.1km(육상 관로 21.9km, 해저 관로 9.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시설 용량 1,000m³/일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완도군은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저 관로를 통해 광역 상수도망 공급함으로써 도서 지역 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군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을 통해 기후 변화, 재해에 대비한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가뭄으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읍·면 민관협력 체계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진도군이 지역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 민관협력체계의 역할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복지사업의 구성원이 주체적인 복지 리더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진도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민관협력체계 지역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위를 더 꼼꼼히 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고구마빵 피낭시에, 농식품부 콘테스트 대상 수상

고구마 맛·모양 그대로...빵지순례 랜드마크 자리매김



대상 수상한 피낭시에 이현미 대표.

해남군은 '해남고구마빵 피낭시에'가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중 지역의 특산물로 경쟁력 있는 메뉴를 개발·판매해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우수 외식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23개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전문가 및 소비자심사단과 함께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매출·일자리 창출,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서면과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을 수상한 피낭시에에는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해남고구마를 재료로 지난 2017년 고구마의 모양과 색깔을 그대로 살린 독창적인 해남고구마빵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구마빵 생산을 위해 해남고구마 100t, 유기농쌀 10t을 연간 매입해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융복합산업을 기반으로 '빵지순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까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고구마빵을 매개로 지난해에만 13만 여명의 방문객이 피낭시에를 찾았으며, 고구마타르트, 해풍감자빵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현미 피낭시에 대표는 "해남특산물을 활용해 해남에서만 만들 수 있는 빵을 통해 지역농업과 상생하고,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추석 연휴 탄력 근무 운영

장흥군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탄력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무는 연휴 기간 동안 임대농업기계 사용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을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명절에 귀성하는 자녀들이 연휴 기간 부모님의 일손을 돕어드리기 위해 농사일을 거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임시 운영을 결정했다.

연휴 기간 임대농업기계 대여(장흥점860-6560 남부점860-6570)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연휴 시작 하루 전인 27일 또는 탄력근무일 10월 1일에 사전 예약 및 입·출고를 하면 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이 쌀 적정생산과 농업인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논공 재배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의 올해 논공

재배면적은 전락작물직불제와 논 타작물 지원 사업으로 229농가, 176ha이며 이는 벼 재배면적 9,270ha의 1.9%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강진군, '농업인 소득증대' 콩 재배 확대

작물 재배 들녘 면담 및 간담회 "생산비 절감 위한 전용 농기계"

콩면적이 350ha에 달한 후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2021년 기준 논콩 면적이 16.5ha로 감소했으나 작년부터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콩 재배가 벼 보다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벼는 육묘와 이앙을 위해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콩의 경우 파종 후 제초 작업을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 확보와 농작업에 여유가 있다. 또한 벼에 비해 2배 이상의 매출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논콩은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한 작물로 전락작물직불금 대상이며 논타작물지원사업으로 전남도와 강진군이

250만원을 추가 지원해 ha당 이모작의 경우 400만원, 단작의 경우에는 35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최근 논콩 재배지를 방문해 경영체 농업인들과 들녘에서 애로사항과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대상 적지 선정에서부터 재배관리 지도,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군에서는 읍면별 대규모 논콩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농업인들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인들은 올해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등 각 경영체들의 대처 방안과 재배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소득작목으로 논콩 확대 및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